전북도, 미세먼지 잡는 '도시숲' 조성… 4년간 1280억 투입

전라북도, 2022년까지 적극 추진
바람길 숲·명상숲·마을숲 등 가꿔
폭염완화 등 도민 불편 줄이기 노력

환경녹지국 브리핑(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례)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완화 등 기후변화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128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숲을 확대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심내 우거진 숲과 녹지공간의 미세먼지 흡수·흡착 기능과 폭염완화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권 주변에 매년 320억원 투자하여 도시숲 103ha, 가로수 128㎞, 명상숲 121개교, 마을숲 31개소를 조성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억이 증액된 250억을 투입해 작년말 새롭게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한 도시 바람길 숲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바람길 숲 1개소 및 미세먼지 차단숲 3개소 6.5ha*를 조성할 계획으로 도시 바람길 숲은 전국에서 우리도가 사업제안과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전주시 백제대로, 팔달로, 소풍길 등에 2019년 ~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숲을 조성한다.

바람길 숲의 특징은 외곽 산림에서 생성된 양질의 공기를 주민생활공간으로 공급하는 통로를 제공하여 도시 내·외곽 산림의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차단 숲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에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산단 주변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도시숲을 조성 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폐선부지 등 2ha이상 대규모 면적에 도시숲도 조성한다. 고창군은 고창읍 석교리 센트럴파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전주시는 팔복동 공장주변에 문화공간과 더불어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 적용이후 사유지의 개발 수요가 증가되어 도시숲의 부족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도시숲 조성 사업비를 배정하여 산림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14개 시·군 유휴지 구석구석에 녹색쌈지숲, 가로수, 명상숲, 전통마을숲 복원 등 도시숲을 만들 방침이다.

전북도는 2005년부터 시작한 생활권주변 도시숲 조성사업은2022년까지 도시숲 465ha, 가로수 1,595㎞, 명상숲 152개소, 마을복원숲 57개소를 조성하게 된다.

전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우리도는 민선7기 들어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 확대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전북 만들기는 물론, 도시숲 이용객들에게 제대로 된 휴식과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아이티엔지니어링, 지평선 산단에 '둥지'

상반기까지 공장 착공 검토 마무리
양산 위한 품질인증 심사 완료 예정

아이티엔지니어링이 개발한 경상용 전기자동차.

아이티엔지니어링이 전기차 양산을 위해 올 상반기에 전북 김제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착공한다.

12일 김제시에 따르면 아이티엔지니어링(대표 김석주)은 지난 8일 토지대금(면적 8만2211㎡)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차근 차근 진행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는 양산을 위한 공장건축 착공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경상용 전기차 양산에 앞서 국제 품질경영 인증인 ISO 9001의 1차 인증 심사는 이달중에 마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전라북도·김제시와 투자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공장 건설을 위한 준비와 설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아이티엔지니어링은 17년간 소형승용 및 경상용 전기자동차를 개발 완료했다.

또 국내 출시 기준시험을 마치는 등 그간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의 30개 차종 신차 개발 프로젝트와 전기차 관련 여러 국책과제를 수행할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전기자동차 전문기업이다.

/전북 김제=봉채영 기자 bcy2020@

유럽시장 공략 나선 '전주시 탄소산업'

전북도-탄소융합기술원과 박람회 참가
해외 마케팅·수출 확대 등 교두보 마련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탄소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 탄소산업 중심지인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주시와 전북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내 탄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복합소재박람회(이하 박람회)인 'JEC World 2019'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도, 기술원은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 탄소 유망기업인 거광이엔지와 다인스, 비에스엠신소재, 새날테크텍스, 피치케이블, 삼양사 등 총 6개사와 함께 공동전시부스인 한국관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5년 연속으로 참가한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 탄소중심도시 전주를 널리 알리고, 국내 탄소산업 기술력에 대해 해외 탄소기업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한민국 유일의 탄소산업 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세계 각국의 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을 논의하고, 박람회 참가 기업 등 국내 탄소기업의 해외마케팅과 수출확대를 위한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탄소산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전시부스 운용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산업에 대한 위상을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내 탄소기업들이 해외기업 및 기관들과 기술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전주시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탄소복합재 관련 박람회 참가로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하고, 국내 탄소부품의 고부가가치화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전주시가 주도해온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제14회 국제탄소페스티벌(ICF)'과 'JEC Asia 2019'가 공동 개최될 예정이다.

/전북 전주=봉채영 기자 bcy2020@

남원시 "춘향제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자"

춘향제전위원회가 제89회 춘향제 자원봉사자 1220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3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춘향제 기간 동안 행사장 곳곳에서 공연 지원, 교통질서 유지 및 통제, 각종 행사안내 등을 맡는다. 자원봉사단의 분야별 실무교육과 발대식은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춘향제전위원회 관계자는 "시민, 관광객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제 89회 춘향제 축제를 만드는 주인공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북 남원=봉채영 기자

완도군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2곳 선정

느린섬 여행학교·울모래마을
18일부터 상반기 참가자 모집

신지면 울모래마을 전경.

완도군은 전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공모사업에 슬로시티인 청산면의 느린섬 여행학교와 신지면 울모래마을 2개소가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귀농·어, 귀촌에 관심 있는 전남 외 다른 시·도민이 5일에서 최장 60일간 전남 지역 농어촌에서 살며, 도·농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에 전남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 35개 마을이 참여했으며, 완도군은 청산면 느린섬여행학교와 신지면 울모래마을이 신청했다.

그 결과 수행 여건, 추진 의지, 실현 가능성, 추진 효과 등 총 4개 분야에 전문가들로부터 고루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신청한 2개 마을 모두 대상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청산면에는 세계최초 슬로길 1호, 세계농업유산 1호인 구들장논이 있으며 매년 4월 슬로우시티 걷기축제가 열리고, 신지면은 공기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가 많아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며 청결·안전 분야에서 으뜸이자 국내 최고 여름 휴양지인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이 있는 곳이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은 4월 15일~7월 14일, 8월 15일~11월 14일 2회로 나눠 운영한다.

상반기 참가자는 오는 18일부터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당 마을의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성과 추진 의지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본 사업이 도·농간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참가자들이 귀농·어, 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 마을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이제건 기자 wando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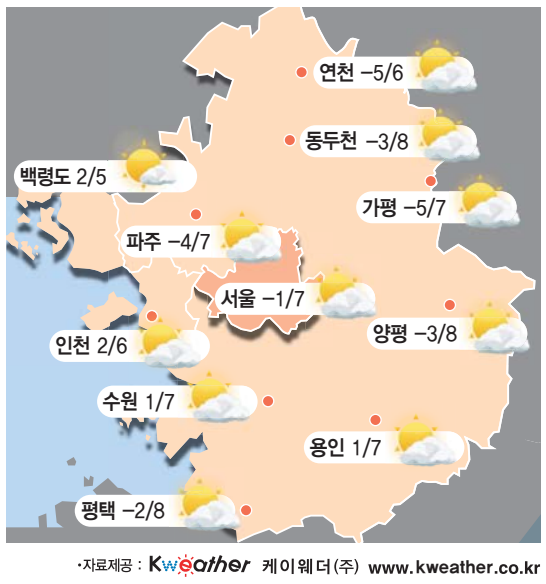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47 | 해짐 / 18:37

3월
13일 (水)
음력 : 2월 7일

수도권 날씨
-1 ~ 7℃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